

●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 4~6월의 배합사료 가격 톤당 5,000원 인하

일본 농협은 3월 14일 4월~6월의 배합사료가격을 전국 축종 평균 1톤당 500엔(5,000원)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농협은 축산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4월~6월의 3개월간 사료기금으로부터 보전을 요청하여 3월 27일 이사회 결정을 앞두고 있으나 톤당 550엔이 될 전망이다. 이번의 가격인하는 환율의 1달러당 118엔으로 예상이외의 엔화강세 경향을 보이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밖에 단백질 원인 대두박, 어분의 가격이 오를 듯 하지만 옥수수의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안정되고 있어 가격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농협의 사료가격 인하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사료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료기금으로부터 보전금액이 전기 1,550엔에서 550엔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료기금 보전을 위하여 사료 톤당 500엔씩 인상된다.

□ 산란계 농가 가축배설물 처리시설 정비 63%

농림수산성이 3월 11일 가축배설물 처리실시축종별 정비상황을 집계한 결과 2004년도에는 가축배설물에 관한 법률이 완전 실시되게 되지만 농림수산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까지 정비를 마친 농가의 비율은 전체의 50%로 시설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설정비가 늦어지는 이유는 공동시설의 정비가 진척되지 않은 것이며 공동시설은 주변주민과의 조정이나 고비용이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축종별 정비상황은 산란계가 가장 많아 63%이고 양돈 54%, 육우 51%, 유우 48%, 육계 44%, 말 29% 등으로 나타났다.

산란계는 개별 농가별로 시설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퇴비 이외에 소각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한편 육계에서 진척이 많되는 이유는 개별농가보다는 인테그레이션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 4월 시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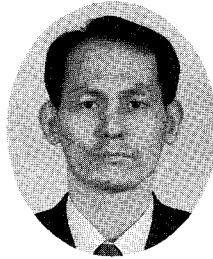
계란은 공급면에서 봄철의 산란기에 들어 높은 수준의 안정된 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수요면에서는 기온상승에 의한 냄비요리의 감소, 학교급식의 중단에 의한 물류의 정체, 도매가격의 저가동 염려되는 점이 많고 유일하게 대규모 외식업체에 의한 수요확대가 기대된다. 도매가격은 중간 크기로 평균 170엔(1,700원)정도로 예상된다.

4월 일본산 닭고기 출하수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중량으로는 99.3%에 달하여 대략 작년 수준이 될 것 같다. 수요면에서는 꽃구경이나 연휴에 따른 업소용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나 지나친 기대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전망이 쉽지 않은 우려도 있다. 연휴전의 적극적인 생산조정 실시에 따른 생산억제를 기대할 수 없다. 시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격	145	161	176	181	175	115	900t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육 백

□ 닭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네덜란드와 미국 코넷티커주산 닭고기 수입 다시 일시금지

닭인플루엔자 발생이 홍콩이나 미국에서 단속적으로 전해져 왔으나 금년에는 홍콩의 신형닭인플루엔자 A 형(H5N1)에 2명이 감염되어 그 중 1명이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양계관련 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다.

그 후의 보고에서는 홍콩 위생성 등이 닭인플루엔자와 같은 증상의 나타내는 환자와 작년말부터 금년 2월까지 중국 광동성에서 이형폐렴증(異型肺炎症)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조사를 강화하였지만 이상 닭인플루엔자의 활동성 증가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중국의 위생부는 WHO에 대하여 광동성에서 이형폐렴증유행은 종식되어 광동성에서 유행하는 것과 홍콩에서의 H5N1 환자와의 관련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신형 닭인플루엔자 A 형이 사람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닭인플루엔자의 위협은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네덜란드에서는 30년만에 발생되었고 미국 코넷티커주에서도 다시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2002년도 고품질닭 기술지도연수회」개최

사단법인 일본종계부화협회는 3월17일 군마개 농협회의실에서 「2002년도 고품질닭기술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회에서는 2002년도부터 고품질닭증식보급체제확립사업(일본중앙경마회조성사업)으로 일본육용계『하리마(はりま)』의 매뉴얼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연수회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상무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일본육용계『하리마』에 대하여」가축개량센타의 오오시마(大島)장장이 발표하였고, 「닭의 영양생리·품질개선에 대하여」도후꾸(東北)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의 아끼바(秋葉)교수(일본가금학회회장)가 강의하였고, 「조합원과 생산자가 만드는 닭고기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생활클럽사업연합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과장이 각각 강연하였다.

□ 아마다께 주식회사 영업과 기업관리로 양분

종계부터 가공·유통부분까지 경영하고 있는 아마다께(甘竹)주식회사는 4월 1일부터 회사체제를 재편하여 그룹운영을 영업과 기업관리의 2개 부분으로 특화시키기로 하였다.

회사의 주력부분인 치킨사업부분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종계·부화부분과 실용계 생산을 통합하여 아마다께·베스트·치킨의 영문 머리글자를 다서 「(주)A.B.C. 팜」으로 개칭하고 처리·가공부분은 「(주)A.B.C. 푸드」로 2개의 공장을 통합하면서 변경하였으며 운송부분의 회사명도 「A.B.C 익스프레스」로 변경하였다.

이번 기구개혁에 대하여 아마다께 사장은 「우리회사도 금년으로 창업 40주년을 맞아, 관계회사는 제휴회사를 포함하면 11개사, 1,500명의 직원이 일하게 되었다. 사업의 주력인 닭고기사업과 다른 사업부분인 외식이나 반찬, 계란 등의 사업분야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 일본산닭고기와 계란, 가공제품의 안전·안심을 추구하는 한편,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사업체제의 변화를 시행하였다.」고 말하였다.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